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2015. 6. 8. ~ 6. 14. 주간

VOL 37

전남농업정보

주간 기상전망

농산물 재배·출하·가격 동향
대파콩 재배 동향 및 양념채소·엽근채소 가격 동향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
전남 양파마늘 수급 동향 및 당면영농 추진 상황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장흥군, 만발한 작약꽃에 농가소득 향상 기대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농수산식품 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전남농기원, 신품종 고품질 생마늘용 '단영' 개발

정책동향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신청 쇄도 성공 예감

해외 농업정보
미국 최대 육가공업체 Tyson Foods, 클린 라벨 선언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으며 강수량은 평년(2~8㎜)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음

❀ 농산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3~6월 대파 정식면적 6% 감소 전망
- 2015년 콩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7.2% 감소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양념채소 : 건고추, 마늘**

- **건고추** : 건고추 6월 산지가격은 재고량이 전년보다 적으나, 2만여 톤 이상 남아있어 평년(5,824원/600g)보다 낮을 전망
- **마 늘** : 마늘 6월 도매가격은 재고량이 평년보다 많으나, 2015년산 생산량 감소로 평년(3,506원/kg)보다 높은 3,600~3,900원/kg 전망

▸ **엽근채소 : 양배추, 감자**

- **양배추** : 양배추 가격은 봄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 및 평년보다 높은 8,000~9,000원/8kg 전망
- **감 자** : 감자 수미 가격은 노지봄감자 출하량 감소로 작년 및 평년보다 높은 25,000~30,000원/20kg 전망

❀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전라남도)

▸ 전남 양파·마늘 수급 동향 및 당면영농 추진 상황

· 양　파 : 재배면적은 전국의 51%인 9,171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686원/kg(전년 411원 대비 67%↑)

· 마　늘 : 재배면적은 전국의 26%인 5,425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3,540원/kg(전년 2,740원 대비 29%↑)

▸ 당면영농 추진상황

· 모내기 실적 : 94,593ha(계획 168,100ha, 대비 56%)

· 맥류·조사료 수확 : 맥류 4,582ha(계획 16,250ha, 대비 28%)
조사료 45,000ha(계획 46,000ha, 대비 98%)

· 매실 수확 : 394ha(계획 3,937ha, 대비 10%)/6월초부터 본격 출하

❀ 전남 시·군 농정 동향(전라닷컴, 남도일보)

▸ 장흥군, 만발한 작약꽃에 농가소득 향상 기대

▸ 고흥군, 영농철 찾아가는 영농기술지원 서비스 시행

▸ 전남 무안,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FTA 극복한다

▸ 함평군, 새끼우렁이 73t 공급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식품 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 국산 딸기 올해 11월부터 캐나다 수출 가능!!

▸ 농협, 수출농산물 생산조직 조직화…규모화에 2500억원 지원

▸ CJ제일제당-부귀농협 MOU 체결…마이산 김치 수출 확대 나서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신품종 고품질 생마늘용 '단영' 개발
- 지구온난화 대비 버섯 신품종 개발 박차
- 황도품종 시리즈 개발로 복숭아 황금기 열어간다
- 논 잡초 체계적 방제가 중요!
- 푹푹 찌는 여름철 농작업 이렇게 하세요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신청 쇄도 성공 예감
- "농식품부 · 한돈농가 공동,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나서!"
- 직거래를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기반 마련돼
- 전남 친환경 유기농산물 무역박람회서 선봬

❀ 해외 농업정보(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미국 최대 육가공업체 Tyson Foods, 클린라벨 선언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 밀 선물가격은 가격 하락에 대한 공매도 물량 유입으로 가격이 상승
  - · 옥수수 선물가격은 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가격이 소폭 상승
  - · 대두 선물가격은 높은 파종 진척도와 중서부 지역의 기후 여건 호조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여 가격이 하락

❀ 고소득 농업사례(전라남도, 중앙일보)

▸ 30여년 친환경방목축산으로 억대 소득

▸ 귀농도 벤처…스마트기술로 인삼쌈채 키워 연매출 2억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2015 농식품 파워브랜드전」 신청 접수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신청기간 : 6. 3. ~ 6. 16.(2주간)
- 선발분야 : 4개 분야, 22개 브랜드
  - 원예농산물, 전통식품, 건강지능성식품, 일반식품·외식
- 신청자격 :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1개 업체당 1개 브랜드로 한정, 동일한 제품으로 1회 이상 동일한 포상은 제외
  - 대통령상 1회 이상, 국무총리상 2회 이상 개인 및 업체는 참가 제외
- 선발절차
  - 1차 평가 : 신청서 접수 및 추천심의(지자체)
  - 2차 평가 : 서면평가, 인지도조사, 제품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전문평가단)
- 시상 및 전시 : 9. 8. ~ 12.(예정)

▸ 2015년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

- 대　　상 : 한(육)우, 돼지, 육계, 계란 브랜드경영체
- 신청기한 : 6. 12.(금)
- 추진기관 : (사)소비자시민모임
- 신청방법 : 신청을 희망하는 브랜드경영체를 도에서 검증 후 추천

• 신청자격

-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된 브랜드경영체
- 연간 출하물량이 한우 1천두, 돼지 20천두 이상인 브랜드경영체
- 브랜드규약, 소비자보호규정 등을 운용하는 브랜드경영체

▶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 판매기간 : (당초) 4. 20. ~ 6. 5. → (변경) 4. 20. ~ 6. 26.

*** 옥수수 5. 4~6.12, 콩 6.1~7.17, 시설작물 2.23~12.31 등**

• 보험상품 :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손해, 특약 가입시 병충해(도열병 등 4종) 손해까지 보장

• 가입방법 : 농지 소재지 농협에서 가입

- 보험료는 올해부터 카드 분할 납부 가능
-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정부 50%, 지방비 30%, 자담 20%)

*** 1ha 당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단가 : 473천원(보조 378, 자담 95)**

▶ 2015년 대한민국 친환경축산 페스티벌 행사

• 기　　간 : 6. 11. ~ 13.(3일간)

• 장　　소 : 일산 킨텍스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사)친환경축산협회

• 주요 전시내용

- 주제관 : 친환경축산정책 홍보 및 상담, 체험
- 친환경축산 식품관(70부스) : 친환경축산물 홍보 및 소비
- 학술행사 : 한국형 친환경 축산 발전방향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6. 8.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6/8)	전주 (6/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9,800	39,800	40,800	42,600	41,200	↓ 6.6	↓ 3.4
	콩(백태)	35kg	139,000	139,000	137,000	142,000	193,907	↓ 2.1	↓28.3
	고구마(밤)	10kg	29,800	30,200	31,040	26,450	30,507	↑12.7	↓ 2.3
	감자(수미)	20kg	36,800	44,000	47,920	23,300	25,047	↑57.9	↑46.9
채소류	배추(월동)	1kg	740	900	-	314	430	↑135.7	↑72.1
	양배추	10kg	11,400	12,000	7,020	4,000	6,087	↑185.0	↑87.3
	오이(다다기계통)	15kg	22,000	17,333	26,000	22,417	25,046	↓ 1.9	↓12.2
	애호박	8kg	9,800	8,200	11,320	13,600	13,097	↓27.9	↓25.2
	토마토	10kg	18,000	23,000	23,280	16,400	20,260	↑ 9.8	↓11.2
	무(월동)	1kg	700	670	492	-	562	-	↑24.6
	당근	20kg	29,600	30,000	23,520	31,900	32,367	↓ 7.2	↓ 8.5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42,500	772,833	↑27.6	↑ 6.1
	풋고추	10kg	38,200	45,200	58,320	34,000	38,937	↑12.4	↓ 1.9
	마늘(난지)	10kg	36,200	35,400	35,400	27,400	35,317	↑32.1	↑ 2.5
	양파	1kg	760	710	808	525	672	↑44.8	↑13.1
	대파	1kg	2,560	2,540	1,700	1,165	1,583	↑119.7	↑61.7
	파프리카	5kg	20,600	29,000	17,640	19,550	21,183	↑ 5.4	↓ 2.8
	방울토마토	5kg	15,000	17,800	18,240	13,800	14,353	↑ 8.7	↑ 4.5
	수박	1개	14,000	15,400	17,280	12,400	14,980	↑12.9	↓ 6.5
과일류	사과(후지)	15kg	67,800	67,800	65,800	90,450	81,017	↓25.0	↓16.3
	배(신고)	15kg	41,200	41,200	40,960	56,200	53,433	↓26.7	↓22.9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6/8)	전주 (6/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2,000	532,000	532,000	534,000	561,333	↓ 0.4	↓ 5.2
	들깨	45kg	420,000	420,000	420,000	446,000	356,800	↓ 5.8	↑17.7
	새송이버섯	2kg	8,400	8,600	8,560	8,050	7,890	↑ 4.3	↑ 6.5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486	6,630	6,355	6,339	6,024	↑ 2.3	↑ 7.7
	돼지고기(삼겹살)	100g	2,172	2,347	2,032	2,028	1,912	↑ 7.1	↑13.6
	닭고기	1kg	5,050	5,172	5,389	6,012	5,708	↓16.0	↓11.5
	계란(특란)	10개	1,945	1,988	1,977	1,977	1,849	↓ 1.6	↑ 5.2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4	2,296	↑ 0.2	↑11.0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6. 8.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740 천원	4,631 천원	4,229 천원	↑ 2.4	↑ 12.1
	거세	5,991 〃	5,788 〃	5,004 〃	↑ 3.5	↑ 19.7
송아지 (6~7월)	암	2,388 〃	2,349 〃	1,754 〃	↑ 1.7	↑ 36.1
	수	2,953 〃	2,827 〃	2,610 〃	↑ 4.5	↑ 13.1
육우(600Kg)		3,270 〃	3,372 〃	2,568 〃	↓ 3.0	↑ 27.3
젖소수송아지(7일령)		178 〃	178 〃	21 〃	-	↑ 747.6
돼지(110kg)		489 〃	487 〃	465 〃	↑ 0.4	↑ 5.2
육계(원/kg)		1,317 원	1,361 원	1,206 원	↓ 3.2	↑ 9.2
계란(원/특란10개)		1,350 원	1,355 원	1,407 원	↓ 0.4	↓ 4.1
오리(원/kg)		2,333 원	2,333 원	3,833 원	-	↓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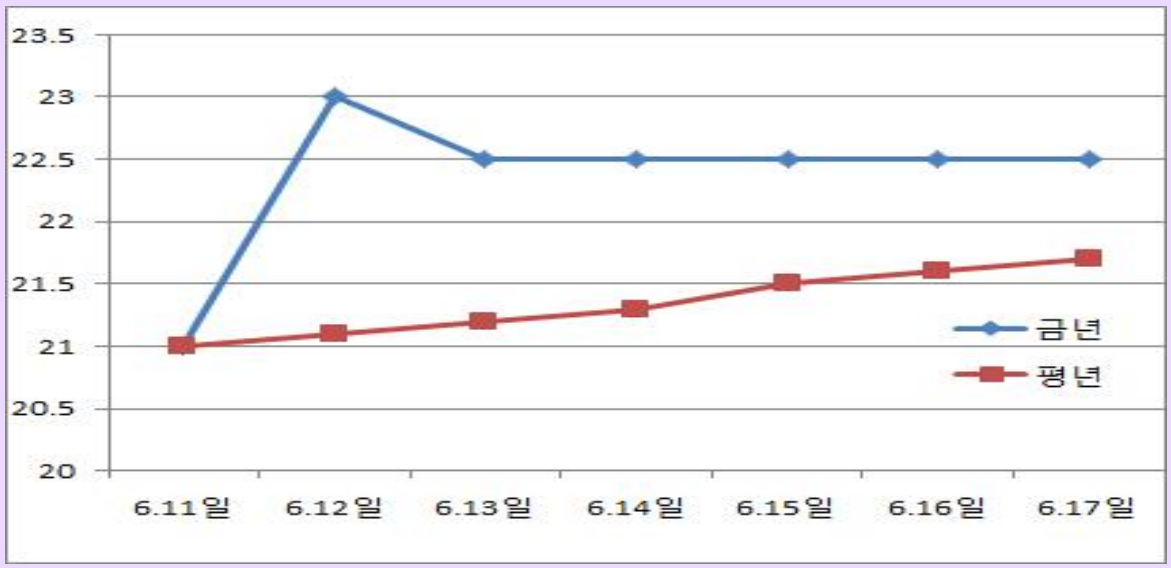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날 씨 (강수량 ㎜)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균(계)	22.4	21.3	1.0	26.1	25.8	0.3	18.6	17.9	-0.5	
6. 11.(목)	21	21	0	23	25.5	-2.5	19	17.6	-1.4	비 (15㎜)
6. 12.(금)	23	21.1	1.9	27	25.6	1.4	19	17.7	-1.3	비 (5㎜)
6. 13.(토)	22.5	21.2	1.3	26	25.6	0.4	19	17.8	-1.2	맑음
6. 14.(일)	22.5	21.3	1.2	27	25.7	1.3	18	17.9	0.1	맑음
6. 15.(월)	22.5	21.5	1	27	26	1	18	18	0	맑음
6. 16.(화)	22.5	21.6	0.9	27	26.1	0.9	18	18.2	-0.2	맑음
6. 17.(수)	22.5	21.7	0.8	26	26.1	-0.1	19	18.3	0.7	맑음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대파·콩 재배 동향

❑ 3~6월 대파 정식면적 6% 감소 전망

○ 3~6월 정식되는 여름·가을·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기·강원지역 여름대파 정식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 하락으로 감자로 대체된 면적이 많아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남지역은 당근과 엽채류 등의 재배의향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5년 콩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7.2% 감소

○ 농업관측센터 콩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5년 전체 콩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7.2% 감소한 6만 9,284ha로 나타났다. 밭 콩은 전년 대비 6.8% 감소한 5만 9,547ha, 논 콩은 9.7% 감소한 9,737ha로 예상된다. 2015년 3월 농업관측센터 조사결과(-6.4%)보다 재배의향면적 감소폭이 다소 확대되었는데, 이는 2014년산 콩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약보합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조사에서 재배의향을 결정하지 못한 농가 중 일부가 들깨, 수수 등 타 작목으로 전환할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 지역별 콩 재배의향면적을 보면, 호남지역과 충청지역의 감소율이 각각 10.0%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경기지역 7.7%, 영남지역 3.9% 순이었다. 단, 콩은 단모작의 경우 6월 중하순, 후작의 경우 7월 초까지도 파종이 이루어진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양념채소 : 건고추, 마늘

○ (건고추)

- 건고추 6월 산지가격은 재고량이 전년보다 적으나, 2만 여 톤 이상 남아있어 평년(5,824원/600g)보다 낮을 전망

○ (마 늘)

- 마늘 6월 도매가격은 재고량이 평년보다 많으나, 2015년산 생산량 감소로 평년(3,506원/kg)보다 높은 3,600~3,900원/kg 전망

엽근채소 : 양배추, 감자

○ (양배추)

- 양배추 가격은 봄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 및 평년보다 높은 8,000~9,000원/8kg 전망

○ (감 자)

- 감자 수미 가격은 노지봄감자 출하량 감소로 작년 및 평년보다 높은 25,000~30,000원/20kg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

전남 양파·마늘 수급 동향 및 당면영농 추진 상황

○ (양 파)

- 재배면적 : 9,171ha(전년 대비 24.1% 감, 평년 대비 19.3% 감) - 전국의 51%
  - 숙기별 : 조생종 1,493(16%), 중만생종 7,678(84%)
  - 시군별 : 무안 3,355(37%), 신안 1,772(19%), 함평 1,124(12%), 고흥 797(9%)
- 밭떼기 거래(중만생종)
  - 거래가격 / 거래실적 : 8~12천원/3.3㎡(전년 5~6천원/3.3㎡) / 30% 성사
- 출하동향 : 2,890ha(전체 면적 9,171ha의 32%)
  - 수확 완료시기 : 조생·중만생종(완료), 만생종(6. 2 ~ 6. 20)
- 도매시장 가격('15.6.2 현재, 상품기준)
  - 양파 : 686원/kg(전년 411원 대비 67%↑, 평년 700원 대비 2%↓)

○ (마 늘)

- 재배면적 : 5,425ha(전년 대비 26.4% 감, 평년 대비 32.8% 감) - 전국의 26%
  - 품종별 : 남도 4,232(78%), 대서 1,031(19%), 기타 162(3%)
  - 시군별 : 고흥 1,597(29%), 해남 1,056(19%), 신안 1,043(19%), 무안 460(8%)
- 밭떼기 거래 : 11~12천원/3.3㎡(전년 7~8천원/3.3㎡)
  - 거래실적 : 65~70% 성사(고흥 70%, 해남 63%, 신안 66%)
- 출하동향 : 2,370ha(전체 면적 5,425ha의 44%) *** 고흥 80% 수확완료**
- 도매시장 가격('15.6.2 현재, 상품기준)
  - 마늘 : 3,540원/kg(전년 2,740원 대비 29%↑, 평년 3,500원 대비 1%↑)

○ (당면영농 추진상황)

- 모내기 실적 : 94,593ha(계획 168,100ha, 대비 56%) *** 전년 동기 67%**

- 맥류·조사료 수확 : 맥류 4,582ha(계획 16,250ha, 28%)

조사료 45,000ha(계획 46,000ha, 98%)

- 매실 수확 : 394ha(계획 3,937ha, 대비 10%)/6월초부터 본격 출하
- 배 봉지 씌우기 : 6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6월말까지 완료

* 출처 : 전라남도

5. 전남 시·군 농정동향

장흥군, 만발한 작약꽃에 농가소득 향상 기대

- 단위면적 당 수익이 벼농사 5배, 농가소득 향상 기대 높아져 -

○ 장흥군(군수 김성) 용산면 송전리 약용작물 재배단지에 작약꽃이 만발해 주위의 이목을 끌고 있다.

○ 꽃이 아름다워 함박꽃으로도 불리는 작약은 관상용으로도 재배되며 뿌리는 진통, 빈혈, 타박상 등의 약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 장흥군에서는 지리적으로 농업용수 확보와 농기계 운용이 어려운 논과 밭을 대상으로 약용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 특히 2015년 시범사업으로 13개 농가 10.2ha에 작약재배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2.3ha를 추가지원 한다고 밝혔다.

○ 작약은 단위면적 당 수익이 벼농사 대비 5배에 이르는 고소득 작물로 3년에서 4년을 재배하면 출하가 가능하다.

○ 강일성 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작약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경관작물로 활용해 농촌체험관광 등 6차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뉴스메이커

고흥군, 영농철 찾아가는 영농기술지원 서비스 시행

- One-stop 서비스로 현장민원 농업인 편의 제공 -

○ 고흥군(군수 박병종)이 바쁜 영농철을 맞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영농기술 지원 서비스를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 군은 관내 농업인 4천 여명을 대상으로 영농기술지원 서비스를 연초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6일부터는 농번기를 맞이하여 집중 서비스 기간으로 정해 영농기술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특히, 벼농사, 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재배 중 발생하는 현장민원에 대해 이동식 식물병원 휴대용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정확한 병해충 진단 및 방제지도로 농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이외에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인 요청에 따른 작목별 현장 맞춤형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여 현장에서 궁금한 영농기술과 새로운 재배기술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바쁜 영농철을 맞이하여 기술지원 요청이 오면 현장에 바로 출동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며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 한편, 군은 지난 1월~4월에는 새벽을 여는 시설원예 현장컨설팅을 통해 농가별 시설환경에 따른 맞춤형 기술지도를 시행한 바 있으며, 당면 영농정보에 활용하도록 유자골 영농기술정보 소식지를 년 12,000부도 제작해 배부하는 등의 영농기술지도에 노력하고 있다.

* 출처 : 전라닷컴

전남 무안,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FTA 극복한다

○ 전남 무안군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 무안군은 올해 72억원을 친환경 농업육성에 지원해 친환경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꾀하기로 했다.

○ 무안군은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16억원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에 3억원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사업 5억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8억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22억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3억원,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 사업 4억원 등 14개 사업 분야별로 시기에 맞춰 농가 신청과 지원할 계획이다.

○ 친환경농산물 내실화를 통해 비자가 우리의 친환경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농가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친환경 교육을 2월 중순부터 3월초까지 1,000명을 친환경 농업인을 대상으로 읍면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 무안군은 인증관리 강화 및 신뢰확보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인의 의식 수준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 마을별 협의체를 통한 성실영농 이행과 농자재 공동 구매로 저비용 농업을 실천하고, 부정사례 적발농가는 단지참여 배제, 친환경농산물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로 부적합 농산물 인증취소 및 시장출하 사전 방지들을 통해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대규모 농업 방식으로 전환하고,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의 6차 산업화로 친환경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내년부터 정부정책 전환으로 친환경농산물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유기농 시대 개막에 대비하기 위해 유기농 인증면적을 지난해 170ha에서 올해는 400ha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이를 위해 품목별 기술교육 강화와 녹비작물 재배와 볏짚환원, 유기질비료 공급등 유기농 실천기반 확충과 안정적 판로 개척을 위해 유기농 쌀 학교급식 공급 확대와 쌀중심에서 밭작물, 임산물 등으로 인증품목을 다양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 무안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의 철저한 인증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 보장과 지원을 통해 인증단계 상향 유도로 유기농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광주 CBS

함평군, 새끼우렁이 73t 공급

– 친환경농업에 탁월…"제초비 절감 등 1석4조 효과“ –

○ 전남 함평군은 유기농 정착과 무제초제 농업 실현을 위해 사업비 7억3천여만원을 투입해 3천700여 농가 6천100ha에 새끼우렁이 73t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 지난해까지는 친환경 단지와 일반 논에 무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농가에서 5%를 부담한다.

○ 전남도 방침에 따라 농가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 90%, 자부담 10%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농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군이 추가로 5%를 지원키로 했다.

○ 함평군과 함평군우렁이생산자협의회는 타 지역 우렁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체 공급량을 협의회에 배정하고, 협의회에서 각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 새끼우렁이 농법은 부화 후 50일된 우렁이를 10a당 1.2kg(1천200여 마리)을 논에 넣어주면 제초효과, 제초비용과 노동력 절감, 생태계보존 등 1석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우렁이농법을 사용하는 양연모(63·학교면)씨는 “오리농법도 해봤었지만 새끼우렁이만큼 잡초를 제거하는 친환경농법은 없었다”면서 “새끼우렁이만으로도 잡초 방제가 탁월해 제초제를 이중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군 관계자는 “새끼우렁이 농법은 무엇보다도 벼농사 잡초제거 효과와 제초비용 절감, 노동력 절감 등에 큰 성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새끼우렁이 농법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우렁이농법 사업신청은 지난 3월말까지 끝났지만 모내기 이전까지 읍면에 신청하면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

* 출처 : 남도일보

6.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농수산식품 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 농식품 수출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 공유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제 1차 농수산식품 SPS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PS협의회는 농식품 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등으로 지난 3월 꾸려진 범정부차원의 정책 협의회다.

○ 이 날 회의에서 각 부처들은 각 기관이 수집한 비관세조치 사례와 이에 대한 영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부처 관계자들은 비관세장벽 문제는 여러 산업과 연관돼 있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우선 수출업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 품목별 특성과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 농식품 수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중국 식품안전법과 관련한 개정 사항을 더 빠르게 전달하고 중점적 검토가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 이은섭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사무관은 "앞으로 협의회는 분기별로 전체 회의를 진행 할 계획"이라며 "우리 농식품 수출국의 SPS조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상대국 비관세장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국산 딸기 올해 11월부터 캐나다 수출 가능!!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2015. 6. 2. 올해 11월부터 국산 딸기의 캐나다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국산 딸기의 캐나다 수출검역 지원을 위하여 현재 국내 고시 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캐나다로 국산 딸기를 수출하려는 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하고 재배기간 중 캐나다가 우려하는 병해충의 발생밀도를 낮추기 위하여 예찰조사와 적절한 약제방제를 실시하면 된다.

○ 2014년 한국산 딸기는 417 톤이 수출되었는데 주로 태국, 러시아,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 북미 지역에는 미국으로의 수출 길이 열려 있으며, 캐나다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010년 6월 국산 딸기의 수출허용을 캐나다 측에 공식 요청하고 5년간 검역협상을 진행하여 지난 5월 27일 최종 수출검역 요건을 타결하였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캐나다와의 수출검역 협상 타결로 국산 딸기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아울러, "「정부 3.0 유능한 정부」 기조에 발 맞춰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검역지원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수출농산물 생산조직 조직화·규모화에 2500억원 지원

– 수출농가·조합장 토론회 개최…수출 자조금제 운영…국내외 가격차 보상 계획 –

○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전업농 집중육성과 수출국 다변화, 수출자조금을 통한 국내외 가격차이 보상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천안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주재로 수출농가 및 수출농협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계속되는 엔저영향과 주요수출국의 비관세장벽 등으로 국가전체의 농식품 수출이 전년대비 0.6% 증가에 그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는 판단에서다.

○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최근 전망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100엔당 85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돼 파프리카와 장미 같은 수출주력품목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최근엔 주요수출국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외국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농산물의 경우에 작년에 위생과 검역 등의 문제로 통관이 반려된 경우가 전년보다 33% 증가한 435건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협은 수출생산조직을 적극 육성하는 등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확보하고, 2,500억원의 수출지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상욱 대표이사는 "농협은 수출지원조직을 확충하고 수출자금을 대폭 확대해 수출농가와 수출농협지원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그 결과 지난해 농식품 수출 3억4,000만 달러를 달성했고, 올해는 4억2,000만 달러, 2017년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서현 농협중앙회 수출지원국장은 수출생산조직 육성계획을 보고하면서 "농협전속계약을 통한 수출농산물 생산의 조직화 및 규모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따르면 품목별로 특화된 수출전업농을 올해 3,000명까지 육성하고, APC를 기반으로 한 수출공선출하회 200개소를 육성

하며, 수출창구 단일화를 위한 수출연합조직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출무이자자금운용수익 등으로 농협 70%, 수출공선회가 30%를 거출하는 매칭펀드형 수출자조금제를 운영하면서 국내외의 가격차이를 보상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생산조직 육성을 위해 2,500억 원의 수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이안철 NH무역 본부장은 신선채소 및 과일류 산지 규모화를 통한 수출 확대, 가공식품의 상품다양화와 수출국다변화로 수출역량 제고 등 2015년 수출계획을 설명했다.

○ 이 같은 농협중앙회의 농식품 수출활성화 계획에 대해 수출농가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하며, 엔저하락에 대한 대응, 수출국 다변화, 국내외 가격차이 보전 등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오범록 운봉농협 조합원은 "NH무역의 계획에 따르면 파프리카는 2014년 2,800만 달러를 수출했고, 올해는 145%를 늘리겠다고 돼 있는데 현장상황과는 동떨어진 계획"이라며 "파프리카는 생산량의 99%를 수출했는데, 2~3년 전 1,400원대이던 엔화가 반 토막 나면서 수출을 포기하고 내수로 돌리고 있어 이대로 가면 큰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일본으로만 수출하다보니까 피해가 크고,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싶어도 미국, 유럽 등은 물류비용 때문에 수출방법이 없다"며 "물류비 등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딸기를 수출해온 하동호 수곡농협 조합원은 "딸기는 저장성이 약해서 클레임(배상청구)이 많은데, 자조금 형태의 장려금을 통해 이런 것에 대비하고 판촉이나 홍보를 위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마토를 재배하는 고영국 도곡농협 조합원은 "수출농가를 전문화시키고, 생산량을 전량 수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 출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CJ제일제당-부귀농협 MOU 체결…마이산 김치 수출 확대 나서

- 부귀농협에 수출 라인 구축, 중국·동남아 시장 적극 공략 -

○ CJ제일제당과 부귀농협이 마이산 김치의 수출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

○ 진안 마이산김치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CJ제일제당(주)과 부귀농협, 무진장임실지역 협동조합 간에 양해각서 체결식이 지난달 19일 진안 부귀농협 김치가공공장에서 개최됐다.

○ 이날 협약식은 CJ제일제당(주)김철하 대표이사, 국회 박민수 의원, 무진장임실 관내 11개 농협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 향후 부귀농협 김치공장 수출용 설비 라인을 설치해 중국 등 동남아 국가에 김치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CJ제일제당(주)측에서 제품 수출을 주도하고 부귀농협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고품질 김치를 생산, 농민 조합원과의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이 가능해져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 출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7.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전남농기원, 신품종 고품질 생마늘용 '단영' 개발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토종마늘을 개량해 맛이 순하고 당도가 높아 생마늘용으로 적합한 신품종 '단영'을 육성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 '단영'은 고흥 재래종을 개량한 마늘로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매운맛이 적어 생마늘 맛이 매우 순하고 당도가 높다. 생마늘에서 단맛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단영은 생마늘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의 식성을 생각할 때 앞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생산력 또한 남도마늘보다 6% 높을 뿐만 아니라 마늘 종대에 맺히는 주아(珠芽)의 크기가 4.7배 무겁다. 종대(한 가운데 올라오는 줄기)가 짧은 특성은 기존 마늘과 크게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 마늘 재배면적이 해마다 크게 줄어드는 여건에서 다수성 마늘인 단영은 우리나라 마늘 수급 차원에서도 환영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술원에 따르면 마늘은 주로 사람 손으로 심기 때문에 10a당 6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일부 농가는 큰 주아를 심어 씨 마늘을 생산함으로써 종자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단영은 0.7g의 주아를 심을 때 큰 마늘 생산이 가능해 마늘 생산비를 3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술원은 보고 있다.

○ 이야성 기술원 원예연구소 박사는 "난지형 마늘 신품종 육성은 매우 어려우나 고품질, 큰주아, 다수성의 우수한 특성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마늘 신품종을 만들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이 품종이 보급되면

농민들에게 크게 호평을 받는 동시에 생마늘 품질이 매우 우수해 소비자들의 새로운 기호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지구온난화 대비 버섯 신품종 개발 박차

○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소득작목 발굴 차원에서 초고온 적응성이 우수한 영지버섯 신품종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우리도 임실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영지버섯은 혈압조절, 간 기능보호, 콜레스테롤 저하 효능이 있는 약용버섯으로, 2013년 전북 재배면적이 20ha로 전국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전북 특화작목중 하나이다.

○ 농가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주요 품종은 영지 1·2호 등으로 교잡육종이 아닌 선발 육성한 것으로 버섯 발생 및 생장 적정 온도는 25~30℃인 고온성 버섯이다.

○ 하지만 단목재배 경우 5월에 종균을 접종하여 당년 10월경 1차 수확을 하고, 이듬해 여름에 2차 수확을 하게 되는데,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고온 발생으로 여름철 최고기온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는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가 38일이나 되었다.

○ 이와 같은 이상고온 시기에 버섯균 생장과 버섯발생 그리고 수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균사생육이 불량하고 버섯발생이 불균일하여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 따라서 도 농업기술원은 초고온성 영지버섯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76종의 영지버섯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32℃ 이상의 고온에서도 버섯균 생장이 우수한 다수의 유전자원을 선발하여 자실체 특성을 조사·분석 중이며, 최종적으로 선발된 유전자원은 교잡육종을 통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수량이 많은 영지버섯을 육성하여 2017년 농가 실증재배 단계를 거쳐 품종출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서상영 박사는 "현재 건조 영지버섯 수출은 베트남과 미국 등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수입량은 감소추세로 초고온성 영지버섯 품종이 개발되어 농가에 보급되면 우리도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북농업기술원

황도품종 시리즈 개발로 복숭아 황금기 열어간다

– 복숭아시험장 '미황'등 7품종 개발·보급, 황도품종 전국보급면적 비율 13.6% –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시험장에서는 고품질 복숭아 품종 육성프로젝트를 통해 '미황', '금황' 등 우수한 품종을 시리즈로 개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복숭아시험장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품종은 7개로 신품종 제조기라 할 만큼 많은 품종을 육성하고 있다. 주요 품종으로는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미황', '조황', '금황' 등 황도품종을 시리즈로 개발했고 조생종의 크기를 300g 이상 보완한 '오수백도'와 2005년 품종 등록된 '대명'이 있다.

○ '미황' 등 황도품종의 보급면적은 334ha(100천주)로 전국 보급면적의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명' 품종은 271ha(81천주)를 농가에

보급해 인기 품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현재까지 보급된 면적(605ha)의 복숭아가 수확되면, 재배농가에서는 총생산액 321억원 가운데 219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숙희 청도복숭아시험장장은 “수확시기를 기준으로 6월 중순부터 9월 하순까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개발하고 시기별로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신품종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품종의 농가보급이 더 시급하다며 앞으로 고품질 복숭아 품종 육성과 보급을 통해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올해 품종보호 등록된 ‘금황’은 6월중 종자심의위원회를 거쳐 통상실시권 입찰을 실시하면 2016년부터 복숭아재배농가에 확대 보급될 계획이다.

* 출처 : 경북농업기술원

논 잡초 체계적 방제가 중요!

- 제초제 뿌린 후 3~5cm 물 가두어야 효과 -

○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주 현재 도내 모내기 실적은 계획면적 76,617ha중 24,325ha가 완료되어 31.8%(전년 동기 36.6%)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농사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벼농사는 잡초와의 싸움이기도 하다. 모내기 전후 잡초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거나 작황이 나빠지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잡초방제는 매우 중요하다.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이 도내 논 671필지를 선정하여 벼논에 많이 발생하는 잡초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년생 잡초는

물달개비와 피가 많았고, 다년생 잡초로는 올방개와 벗풀이 방제에 애로를 겪는 문제 잡초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도농업기술원은 해당농가의 효과적 잡초방제를 돕기 위해 방제 방법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이들 잡초 방제를 위해서는 모내기 3~5일전 써레질할 때 옥사디아존, 벤조비싸이크론, 뷰타클로르, 티오벤브카브, 브로모뷰타이드 성분이 함유된 제초제를 뿌려주고, 모낸 후 12~15일경에는 벤조비싸이크론, 보로모브타이드, 메페나셋 성분이 함유된 제초제를 뿌려주어야 한다. 이후에도 잡초 발생이 많다면 모낸 후 25~30일 경에 논에 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벤타존, 엠시피비 성분이 함유된 경엽처리 제초제를 선택하여 뿌려주면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 논에 제초제를 부리면 물에 막을 형성하여 잡초가 발아할 때 약 성분이 흡수되어 방제가 되기 때문에 써레질할 때 논 평탄작업을 충분히 하고, 제초제를 뿌린 후에는3~5cm 깊이로 5일 이상 충분히 논에 물을 가두어 두어야 방제 효과가 높다.

○ 도농업기술원 성덕경 연구사는 “올방개와 같은 다년생 잡초의 경우 그해에 완전 방제하기 보다는 3~5년간 꾸준히 밀도를 낮춰간다고 생각하고 방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방제 요령을 말했다.

* 출처 : 경남농업기술원

푹푹 찌는 여름철 농작업 이렇게 하세요

– 도 농업기술원, 고령농업인 등 세심한 건강관리 등 당부 –

○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연일 30도에 육박하는 기온과 높은 자외선 지수 등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도내 농업

인들의 세심한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기온은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장마철을 제외하고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 발생률은 50대 이상 고령층에서 51%로 높았고, 증상 발생시간은 오후시간(12~17시)에 50.8%, 발생장소는 실외 작업장(논, 밭 포함) 81.1%를 차지했다.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폭염주의보(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으로 2일 지속) 및 폭염경보(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으로 2일 지속)를 주시하고 상황에 따른 안전 요령을 생활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폭염·무더위에 대비한 안전관리 요령은 첫째, 챙이 넓은 모자와 방수·통풍이 잘되는 긴팔 작업복을 입고, 자외선 차단제를 작업 전 최소 30분 전에 바르고 2시간마다 덧발라 여름철 강력한 자외선을 차단해야 한다.

○ 둘째, 햇볕이 강렬한 정오부터~오후 4시까지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하루 5시간 이상 하우스에서 일하지 않으며, 수시로 물을 많이 마시고 그늘이나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자주 짧은 휴식(1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끝으로 2인 이상 같이 작업해 온열질환자가 발생에 대비하고,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하고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여름철 농작업 시 폭염 속에서 일하는 고령 농업인 중심으로 농작업 안전관리 요령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농업인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충남농업기술원

8. 정책동향

◈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신청 쇄도 성공 예감

- 조직위, 개막 140일 앞 225곳···20개국 300개 기업·기관 목표 초과할 듯 -

○ 오는 10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가 개막 140여 일을 앞두고 국내외 기관과 단체 및 기업 등 225곳이 참가하기로 하는 등 참가 신청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박람회 성공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 30일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각국 대사관을 방문,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기업 전문 기관을 통해 유치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 그 결과 현재까지 네덜란드·프랑스·일본·미국 등 25개 기관 및 기업들의 참가 신청을 이끌어냈으며, 인도·케냐 등 100여 개 이상의 해외 기업들과 접촉하는 등 해외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또한 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관 방문, 관계자 면담, 중소기업청과 업무협약 체결 등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국내 200개 기관·단체·기업이 참가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 이같은 참가 열기를 감안하면 당초 유치 목표인 국내외 20개 국 350개 기업·기관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돼 국제농업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기업홍보관 확대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외 바이어 초청을 확대하고, 기업들과 국내외 바이어들 간 매칭을 통해

우수 제품의 홍보 및 판매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참가 신청 쇄도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기대하고 있으며, 기관·기업의 참여도를 높여 비즈니스 박람회로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해 전남 농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2015국제농업박람회는 ‘창조농업과 힐링의 세계’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나주시 산포면)에서 개최된다.

*출처 : 전라남도

◈ “농식품부·한돈농가 공동,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나서 !”

○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는 ‘15.6.1(월)부터,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돼지고기 가격 인하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생산자와 소비자, 가공업체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돼지고기 지급률 조정캠페인’을 실시한다.

○ 이번 캠페인 내용은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kg당 5,500원 이상 상승할 때 지급률을 1~2%를 내려서 소비자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 높은 돼지고기 가격이 당장은 농가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육가공업계의 원료육 구매부담 가중과 경영악화, 소비자의 국내산 시장 이탈, 수입육의 급속한 시장잠식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국내 한돈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격

자율인하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이외에도 한돈협회가 인증한 식당(한돈인증점 904개소)을 중심으로 돈육 공동구매를 통해 소비자가격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15년 4월까지 돼지고기 총공급량은 전년대비 국내산이 2.4% 감소하였으나, 수입량이 59.1% 증가하여 전년대비 13.9% 증가한 433천 톤이 공급되었다.

○ 특히 삼겹살 공급량은 국내산 57천톤, 수입산 57천톤, 총 114천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한 수준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공급량이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금번 가격인하 캠페인과 더불어 가격안정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가격동향 및 향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 홍보하여 생산자 단체, 농협을 통한 조기출하 및 도매시장 출하물량 확대 유도하고 저지방 부위 및 햄, 소시지 등 가공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삼겹살 대체 소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며

○ 대형 할인점과 연계하여 닭, 오리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수입된 돼지고기의 재고현황 등을 파악하여 시장에 조기에 방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필요한 경우 확대공급 방안을 수출입업체,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장기적으로는 소비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가격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탕박가격 기준 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소비패턴이 통상적으로 4~9월까지 증가하고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올해 9월 이후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량이 전년대비 6.2% 증가한 30만톤으로 전망되어 소비 성수기가 지난 9월부터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직거래를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기반 마련돼

○ 농업계의 큰 관심을 이끌어 온「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5.29)되면서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던 직거래 중심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추진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지역 농산물 중심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수급상황 및 도매시장 여건에 따라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농가소득이 보다 안정화되고, 지역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 향후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통해 유통비용이 대폭 절감되어, 소비자 편익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법은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의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우수 직매장 인증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농산물'및'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제2조)

- 그동안 모호했던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유사직거래의 난립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장관이 5년마다「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제5조~제6조)

- 중앙 및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농산물 등 직거래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제9조)

- 중앙 및 지자체는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 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포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제21조~제28조)

- 인증제를 통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되며, 농업인과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시, 소비자는 합리적인 구매 선택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고, 농가는 다양한 판로로부터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어, 지역농업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10년간 매년 3,510억의 순편익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 친환경 유기농산물 무역박람회서 선봬

- 16개 시군 20여 친환경농업 단체·업체서 160여 품목 전시·홍보 -

○ 전라남도는 2일까지 4일간 서울 무역전시관(SETEC)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 2015'에 16개 시군 20개 친환경농업 단체·업체와 함께 참가해 도내 우수 친환경 농산물을 선보이고 있다.

○ 이번 박람회는 (사)한국유기농협의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며 100여 개 지자체, 친환경 인증기관, 친환경유기 농산물·가공식품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쌀 소비 촉진 홍보 페스티벌, 품평회 등 다양한 테마행사를 개최한다.

○ 또한 한국할랄산업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EU대사관, 나눔의 귀농·귀촌성공센터가 마련한 다양한 세미나도 개최돼 소비자뿐만 아니라 참가 업체에도 유익한 비즈니스의 장이 되고 있다.

○ 한 번의 상담으로 수출이 바로 이뤄지지는 않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우수 농산물의 수출을 통해 농업의 활로를 찾아보고 세계 시장의 트랜드를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 박균조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개막 당일 도내에서 참가한 지자체·단체 홍보관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유기농업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라며 "새로운 블루오션 작목을 찾아 전남이 선점할 수 있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

9. 해외 농업정보

◈ 미국 최대 육가공업체 Tyson Foods, 클린라벨 선언

미국 내 최대 육가공업체인 Tyson Foods는 오는 2017년까지 닭고기를 포함 육가공품에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 사용을 전격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해 10월 약 35개의 부화장에서 사용되던 항생제 사용을 중단한 상태이며 2011년 이래 육계 계열화 생산 (broiler chicken operations)에서의 항생제 사용을 점차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Tyson Foods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 관련 질환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클린라벨 (친환경 즉, 항생제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를 내포) 선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육가공식품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 현재 당사는 육계 계열화 생산에서의 항생제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게 될 시기는 약 2017년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축산과정에서 가공, 판매에 걸쳐 모든 가축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수의사들의 감독 하에 가축들의 치료목적으로만 항생제를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그밖에도 현재 Tyson Foods는 가축관련 질병예방을 위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항생제 대체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출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6. 2.(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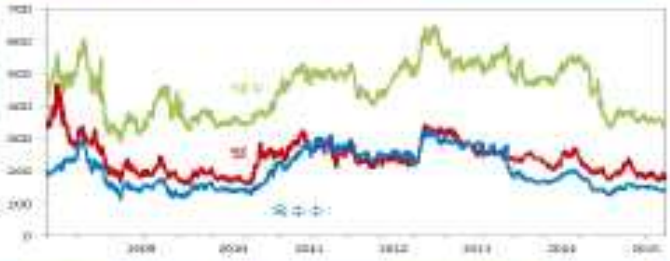
대두 가격, 높은 파종 진척도와 주산지의 기상 여건 호조로 인해 하락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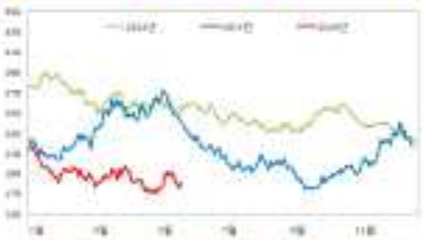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5.6.1)	전일대비	전월평균 (15.5)	2014 평균
밀	181.36	▲3.5%	180	216
옥수수	136.66	▲0.2%	141	164
대 두	340.24	▼0.8%	352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최근인접일),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7월물)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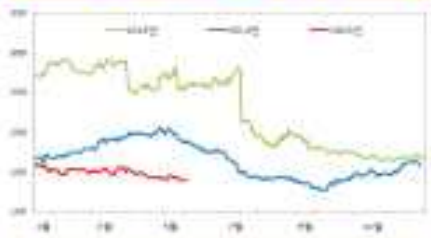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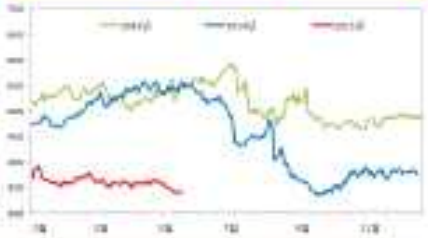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가격 하락에 대한 공매도 물량 유입으로 가격이 상승했음. 美 농무부(USDA)는 6월 1일 기준 주간 작황 보고에서 밀밭의 발아율은 91%로 지난 5년치 평균인 89%를 상회함. 겨울밀 작황 우수와 울음이 44%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1%p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간보다 높은 수준임.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가격이 소폭 상승했음. 美 농무부(USDA)의 주간 작황 보고서에서 옥수수 작황 우수와 울음이 지난주와 동일한 74%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대두 선물시장 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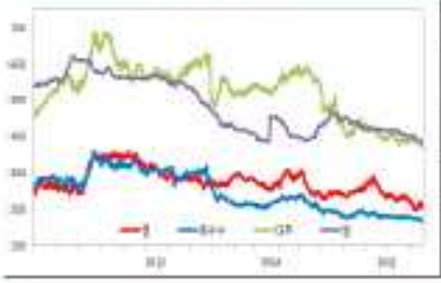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높은 파종 진척도와 중서부지역의 기후 여건 호조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여 가격이 하락했음. 美 농무부(USDA)는 대두에 대한 주간 수출검사물량이 지난 11월 이래로 최저인 73,190톤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주간 작황 보고서에서 대두 주산지의 파종 진척율은 71%로 지난 5년 평균치인 70%보다 1%p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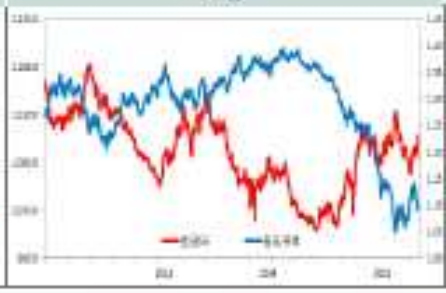
관련동향

- 미국산 밀 수출 가격은 밀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하락, 다만 남부 대평원 지역의 밀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국제유가는 미 달러화 가치 상승, OPEC 생산 증가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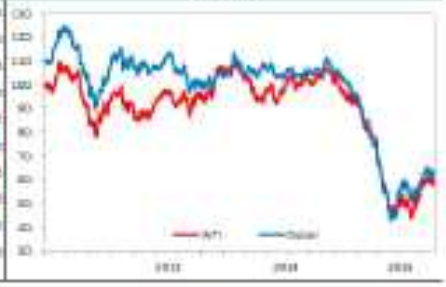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04	▼2.1%
	옥수수	167	▼0.5%
	대두	376	▲0.8%
	쌀	384	-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환율	원/달러	1,108	-
	달러/유로	1.10	-
국제유가	WTI	60.20	▼0.2%
	Dubai	N.A.	-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ST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de B), WTI(7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5.29(수출가격), '15.6.1(환율), '15.5.1(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3) Dubai 현물가격은 싱가포르 Texas Day 휴일로 입력되지 않음.

* 출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고소득 농업사례

30여년 친환경방목축산으로 억대 소득

- 완도 백두농장, 바다 보이는 11ha 초지서 100여마리 방목직거래 -

○ 30여 년 전부터 초지에 한우를 방목해 건강한 송아지를 생산하고, 1등급 한우를 생산해 자체 매장에서 판매, 연 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친환경 방목축산 농가가 있어 화제다.

○ 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완도 군내리 백두농장(황정삼·75)은 11ha의 초지에 100여 마리의 한우를 방목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건강한 암소에서 송아지를 생산, 실패가 전혀 없는 축산경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

○ 특히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축산물인증은 물론 HACCP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있다.

○ 이렇게 생산된 한우는 자체 매장을 통해 대도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해 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최근에는 둘째 아들 철희(43) 씨가 직업군인을 접고 고향으로 귀농, 사육 비법을 전수받아 함께 사육에 나섰다.

○ 황 씨는 "완도에서 제일가는 친환경방목축산 조성은 물론 전복과 한우의 결합으로 새로운 고객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며 "인근에 체험목장을 운영해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우리 축산의 매력과 동물복지 사례를 배우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전라남도는 그동안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사업은 물론 가축 운동장 확보사업, 친환경축산물인증, 축산물 HACCP 지원 등으로 농가의

친환경축산 기반을 조성해왔다. 그 결과 전남지역이 명실공히 친환경 축산물 생산 일번지로 자리매김했다.

○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친환경 방목축산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홍보하고, 축산농가 견학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을 확산시켜 전남을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지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귀농도 벤처 … 스마트기술로 인삼쌈채 키워 연매출 2억

– 51세 박윤희씨, 남편 IT 기술 활용, 온도·습도 자동조절 농장 만들어 –

– 43세 연화순씨, 버리는 복숭아 구입, 3년 시행착오 끝 ‘맛있는 과즙’ 개발 –

○ 서울의 한 과학교육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연화순(43)씨는 2008년 고향인 충북 충주시 엄정면으로 귀농했다. 60세가 넘어서도 일할 방도를 찾던 끝에 결정한 선택이었다. 나름 복숭아로 이름난 고장이어서 처음엔 복숭아 과수원을 했다. 하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첫해 수입은 2000만원이 채 안 됐다. 연씨는 “실망은 했지만 좌절하지는 않았다”며 “뭔가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이리저리 궁리하던 중 자녀들이 복숭아즙을 싫어하는 모습을 봤다. 여기서 역발상을 했다. ‘복숭아즙은 사업이 안 되겠다’가 아니라 ‘맛있는 복숭아즙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3년의 시행착오 끝에 맛을 내는 온도를 찾아냈다. 기계로 복숭아를 으깨지 않고 손으로 할 때 맛이 더 좋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복숭아즙’이어서 모양이 별로인 복숭아도 관계없었다. 볼품없어 버리던 복숭아를 이웃 과수원에서 사들이니 주민들도 반겼다. 온라인 쇼핑몰을 차려 직거래를

하는 연씨는 현재 연 소득 1억6000만원을 올리고 있다. 연씨는 "이웃들이 '버리던 복숭아로 돈을 벌게 됐다'며 식구처럼 챙겨줘 농촌 생활도 한결 편해졌다"고 말했다.

○ 4050 귀농·귀촌자들 중 억대 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있다. 농사가 아니라 일종의 '귀농 벤처'를 일군 이들이다. 귀농해서 단지 벼농사나 밭농사만 지어서는 성공하기 힘들다. 그래선 소득이 귀농·귀촌자 평균인 연 3000만원에 머문다. 고된 육체 노동을 바친 결과가 그렇다. 귀농·귀촌에 '벤처 정신'이 필요한 이유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아이디어로 도전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성공할 수 있다. 연씨도 복숭아 재배에서 즙이란 가공식품으로 눈을 돌렸고, 버려지는 복숭아를 활용해 부농이 됐다.

○ 오천호(34)씨는 30대 귀농·귀촌 사업가다. 경남 하동군에서 이유식을 생산·판매한다. 3년 전 서울에서 외국계 회사에 다니다 그만두고 죽집을 하던 중 귀농을 결심했다. 한 고객이 "죽에 간을 하지 말고 포장해 달라"고 해서 왜냐고 물었더니 이유식으로 쓴다는 것이었다. 오씨는 "고향에서 나오는 친환경 유기농 작물로 이유식을 만들고 도시로 직접 배달까지 해주면 사업이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년여 준비 끝에 귀농한 오씨는 귀촌일기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제품 홍보에 나섰다. 친환경 이유식을 고집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금은 회원 1만6000여 명에 연매출 12억원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 연화순씨나 오천호씨 같은 억대 귀농·귀촌자들에겐 벤처 도전 정신 말고 공통점이 또 있다. '지역주민과 윈-윈 하며 하나 되기'다. 연씨가 마을 농가의 버려진 복숭아를 수거해 주민들과 공생을 꾀

했듯 오씨는 쌀과 채소·고기 등을 마을 주변에서 구입했다. 주민 10여 명도 직원으로 채용했다. 동네 다문화가정엔 이유식을 무료로 제공했다. 오씨는 "지나고 보니 귀농의 가장 큰 관건은 지역 주민과의 화합이더라"며 "도시와 달리 농촌에선 이웃과 어울려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귀농인들은 도시 직장생활에서 쌓은 노하우와 인맥을 십분 활용하는 것도 성공적인 귀농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2013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 장성으로 귀농한 김희곤(52)·박윤희(51)씨 부부는 인삼쌈채 수경재배 기술을 도입해 성공을 거뒀다. 인삼 모양에 뿌리와 잎·줄기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어 웰빙 채소로 불리는 인삼쌈채는 아침저녁 수시로 실내 온도와 빛, 습도를 맞춰줘야 하는 까다로운 작물이다. 김씨는 직장에서 익힌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자동제어시스템을 개발했다. 자동설비가 알아서 온도·습도를 맞춰주는 '스마트 팜(smart farm)'을 만들어 1년 반 만에 2억원의 초기 시설투자비 대출 빚을 거의 다 갚았다. 연매출도 2억원 넘게 올린다. 올 하반기엔 중국·일본·대만에도 수출할 예정이다.

○ 경북 예천에서 논농사와 함께 사과·곶감 등을 재배하는 박덕근(41)씨는 틈나는 대로 서울·대구 등 대도시를 찾는다. 지인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며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박씨는 "귀농해서 농사만 잘 짓는다고 성공할 순 없다.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팔려야 안정적인 농촌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인들을 통해 몇몇 기업과도 연결되면서 지난해 명절 선물로만 7000만원어치를 팔았다. 농업이란 1차 산업에 IT를 접목시키고 판로를 개척하는 귀농인들의 노력에 농업의 패턴도 진화하는 셈이다.

○ 마을기업도 귀농 성공 포인트의 하나로 꼽힌다. 2013년 울산으로 귀농한 이양환(42)씨는 마을 농민들과 '이웃농부'라는 마을기업을 세웠다. 동네에서 생산되는 10여 개 농산물을 모아 꾸러미로 만든 뒤 도시 소비자들에게 직거래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씨는 "마을기업을 통해 주민들과 유대감도 깊어져 도움이 된다"며 "각자 농사를 지으며 틈틈이 시간을 내 일해서 부담도 적다"고 전했다.

* 출처 : 중앙일보

11.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2015 농식품 파워브랜드전」 신청 접수

-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신청기간 : 6. 3. ~ 6. 16.(2주간)
- ❍ 선발분야 : 4개 분야, 22개 브랜드
  - 원예농산물, 전통식품, 건강지능성식품, 일반식품·외식
- ❍ 신청자격 :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1개 업체당 1개 브랜드로 한정, 동일한 제품으로 1회 이상 동일한 포상은 제외
  - 대통령상 1회 이상, 국무총리상 2회 이상 개인 및 업체는 참가 제외
- ❍ 선발절차
  - 1차 평가 : 신청서 접수 및 추천심의(지자체)
  - 2차 평가 : 서면평가, 인지도조사, 제품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전문평가단)
- ❍ 시상 및 전시 : 9. 8. ~ 12.(예정)

◈ 2015년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

- ❍ 대　　상 : 한(육)우, 돼지, 육계, 계란 브랜드경영체
- ❍ 신청기한 : 6. 12.(금)
- ❍ 추진기관 : (사)소비자시민모임
- ❍ 신청방법 : 신청을 희망하는 브랜드경영체를 도에서 검증 후 추천
- ❍ 신청자격
  -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된 브랜드경영체
  - 연간 출하물량이 한우 1천두, 돼지 20천두 이상인 브랜드경영체
  - 브랜드규약, 소비자보호규정 등을 운용하는 브랜드경영체

◈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 판매기간 : (당초) 4. 20. ~ 6. 5. → (변경) 4. 20. ~ 6. 26.

* 옥수수 5. 4~6.12, 콩 6.1~7.17, 시설작물 2.23~12.31 등

❍ 보험상품 :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손해, 특약 가입시 병충해(도열병 등 4종) 손해까지 보장

❍ 가입방법 : 농지 소재지 농협에서 가입

- 보험료는 올해부터 카드 분할 납부 가능
-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정부 50%, 지방비 30%, 자담 20%)

* 1ha 당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단가 : 473천원(보조 378, 자담 95)

◈ 2015년 대한민국 친환경축산 페스티벌 행사

❍ 기　　간 : 6. 11. ~ 13.(3일간)

❍ 장　　소 : 일산 킨텍스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친환경축산협회

❍ 주요 전시내용

- 주제관 : 친환경축산정책 홍보 및 상담, 체험
- 친환경축산 식품관(70부스) : 친환경축산물 홍보 및 소비
- 학술행사 : 한국형 친환경 축산 발전방향

주간

37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